산토리는 特許管理를 經營戰略으로서의 特許管理

日本 산토리(株)는 양주 및 맥주등 食品製造·販賣業體로서 資本金 22억엔에 從業員 4천7백여명의 大企業.

特許部門의 조직상 위치 및 명칭은 社長 직속의 特許情報部로서 專擔要員은 15명이다.

特許情報部는 技術別로 담당 그룹을 두고, 관련 硏究開發部門과 協力하여 特許등의 出願·技術調査·權利저촉 判斷 및 對應, 權利에 관한 契約의 서포트 등을 하고 있다.

特許部門의 주력은 東京에 두고, 大阪府下의 硏究센터에 주재자를 두고 R&D 活動과의 밀접한 연휴에 努力하고 있다.

日本 酒類 食品業界의 有望企業으로 등장한 當社의 特許管理 내용을 알아본다. 〈編輯者 註〉

特許部門의 沿革

산토리(株)는 創業이래 酒類·飮食品의 製造販賣를 主體事業으로, 제반 技術은 노우하우로 축적해오고 있다. 따라서 수년전까지의 工業所有權은 商標가 主였으며, 法務의 하나로서 취급돼 약간 존재한 特許는 硏究管理의 하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醫藥분야에의 진출을 決定함으로써 特許의 중요성이 클로즈업되었고, 이에따라 1982년에는 技術特許室로서 特許 및 實用新案을 담당하는 部門을 독립시켰다. 그후 意匠·商標 및 植物種苗 登錄을 所管業務로 추가하여 特許室이라 개칭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조직을 개편하고 R&D支援機能을 강화하기 위해 情報機能을 충실히 하여 特許情報部로 새로이 발족시키고 特許·實用新案·意匠 및 植物種苗를 所管業務로 하고, 商標는 종전으로 돌아가 總務部에서 法務의 하나로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特許部門의 特徵

技術力의 重視

企業에서의 特許部門의 역할은 社內의 技術에는 能通하고, 發明·考案을 정확히 평가하여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權利化하며, 이를 活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特許部員의 技術力 향상이 業務 質을 높이는데 不可缺이다.

따라서 特許部員은 特許의 엑스퍼트일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한 선발과 교육 그리고 全部員의 硏修를 계속하고 있다.

OA機器의 效率的 利用

特許部門이 발족된 時點부터 特許出願管理 및 保全業務의 확실성과 省力을 위해 컴퓨터 利用을 導入하고 自社 出願에 관한 각종 경고, 관계 部門과의 연락 조정, 管理데이터의 해석등을 시스템化 했다. 여기서 시스템 운용에 專任者를 두지않고 거의 全部員이 컴퓨터 시스템에 관여한다. 社內外 情報나 契約등도 特許파일과의 연관을 도모하고 있다.

植物種苗登錄業務의 담당

植物의 種苗登錄 業務를 所管의 하나로 한다. 法律 및 所轄官廳은 特許등과는 다른것으로 植物의 育成品種도 또한 技術을 基本으로한 知的所有權이라는 생각에 근거한다.

重點處理業務

R&D戰略 및 特許活動

社內의 관계 각 部門과의 연휴에 의해 特許制度를 企業活動에 적극 活用하고 있다. 즉 發明·考案의 초기 단계부터 그 내용을 평가하여 가치있는 權利를 活用하고, 또 他社 權

토 리(株)

特許情報部에서

利를 調査하여 무리한 競爭을 피해야할 業務活動을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事業展開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情報의 蒐集과 活用

社內外의 情報源에 精力的으로 어프로치하고, 정확한 情報에 바탕을 둔 特許業務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蒐集된 情報는 일상적인 社內 情報유통의 場을 설정하여 시기적절하게 관계部門에 提供하는데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社內 認識의 向上

종래 노우하우 주류의 技術을 기반으로 하는 事業과 아울러 工業所有權을 核으로하는 事業의 展開에 적응할 수 있는 體制에 대한 意識을 改革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日常處理業務

出 願

技術분야별로 담당을 정하고, 각 담당마다 관련 事業의 研究開發部門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發明·考案을 발굴 혹은 관련部門으로부터의 發案에 의해 出願을 한다. 어느 경우도 出願 결정의 프로세스는 發明·考案을 한 部門의 起案, 特許情報部長과 協議한후 發明·考案部門長이 결정하며, 수속은 特許情報部에 의뢰하고 있다.

出願業務는 원칙적으로 明細書 초안을 社內에서 작성한 후 社內 代理人에게 제반 수속을 의뢰하고 있다.

年間 出願件數는 特·實 포함하여 內國은 1백50件, 外國은 4백件 內外이다.

審査請求는 정기적으로 發明·考案의 實施상황이나 他社동향을 파악한 뒤에 결정하고 있다.

契約 및 涉外

契約은 원칙적으로 각 事業部門이 主體가 되고, 特許情報部가 工業所有權의 面에서 協力하고 있다.

權利의 活用

基本的으로 각 事業部門이 고려하고 實施하며, 特許情報室은 이를 協力하고 있다.

保有하는 權利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特許情報部와 事業部門에서 평가하고, 陳腐化한 것은 포기하고 있다.

特許情報의 蒐集 및 管理

自國의 特許 및 實用新案은 公開·公告와 함께 분류별의 公報를 特許情報部와 각 事業部門에서 각기 체크한다. 또 外國特許는 주로 CPI를 利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구입은 마이크로 필름이 發行될 때 하고, 이는 책자를 대신한다.

社外 데이터 베이스로는 PATOLIS·BRANDY·DIALOG의 CLAIMS·USPA·WPI등 特許에 관한것 외에 일반 技術情報 및 매스콤 情報등을 포함하여 널리 活用하고 있다.

研究部門과의 協力

각 研究所에서 하는 研究會議에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部員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곳에서 特許관련문제에 관해서 討議에 임하며, 또 일상의 포멀·인포멀한 研究員과의 콘닥트를 통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業務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研究센터에 特許情報部員을 주제시키고 業務연락 및 特許컨설팅등을 하고 있다.

意匠 및 商標管理

앞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意匠은 特許情報部가, 商標는 總務部가 담당하며, 처리는 기본적으로 特許에 준해서 하고 있다.

特許部員의 研修

日本特許協會의 研修를 중심으로 社內外의 세미나에 적극 참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學會등에도 참석하여 情報蒐集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